



THE KAIST TIMES 과기원신문

제53호 격주간

1992년 11월 25일

이번호의 주요내용

제8대 총학생회장 후보 인터뷰 ----- 8면

오는 12월 3일 학사과정 제8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열린다. 현재 등록한 최규철, 성현수 양 후보는 공약이나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 현저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사에서는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규철, 성현수 두 후보를 만나 보았다.

학사과정 학생들 흡연률 34% ----- 3면

본사가 학사과정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34%의 학생들이 흡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언제부터 흡연을 시작했느냐의 질문에는 거의 반에 가까운 48%의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부터 피우게 됐다고 답변했다.

외길 등대지기 20년 ----- 9면

우리원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고 애써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중 한분인 경비 아저씨를 만나보았다.

위당문 학생처장 인터뷰 ----- 13면

최근 제시된 과기원 발전 위원회에 대한 학생처장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어 보고자 본사에서는 위당문 학생처장을 만나보았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의 의의 ----- 7면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과학기술 문화학원도시로서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을 바탕으로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등을 집결시킴으로써 협동연구의 촉진을 통하여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

월요칼럼 - 이진주 교수 ----- 6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피라미드경영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학교의 2대 목표를 교육과 연구로 본다면 교육의 경우 일선 책임자는 교수가 될 것이고 학생은 고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최종고객은 국민이며, 이러한 고객의 만족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교수와 직원은 그러한 고객만족 기준의 교육내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대덕연구단지 조성 준공식 열려

과학기술 메카로의 도약을 위한 20년간의 대역사 마무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공간이 조화된 "과학기술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73년 공사의 첫 삽을 떴던 대덕연구단지가 20년간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27일 조성 준공식을 가졌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단지조성 경과보고에 이어 남수우 본원 재료공학과 교수 등 단지조성 및 연구개발 성과에 기여한 18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그리고 대통령 처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본원 등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전 등 33개의 기관이 입주할 완료한 상태이며, 부지조성사업은 479만평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도로·전력·통신·용수·복지시설 등 단지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초·중등 교육기관 9개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와 교육과 주거"가 조화되는 과학기술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이번 준공식과 관련 연구개발 성공사례 관란이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렸는데 천성순 원장은 우리

별 1호에 관한 성공사례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상징조형물 및 휘호 제막이 중앙과학관 상징광장에서 열렸다.

고 이태규 박사 퇴직금, 부의금 공익법인 만들어 기금으로 헌납

고 이태규 박사의 퇴직금과 부의금이 학문발전과 후진양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을 만들어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유족대표인 이회인씨는 천성순 원장에게 지난 11월 26일 친서를 보내어 퇴직금과 부의금을 간직했다가 정식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기금으로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 고인과 유족들의 뜻대로 학문발전과 후진양성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12월 3일 제8대 총학생회장 선거

1번 정:최규철 부:정용주 2번 정:성현수 부:곽경재

오는 12월 3일 학사과정 제8대 총학생회장선거가 열린다.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는 지난 11월 2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12월 3일 선거를 하게 된다. 후보로는 추첨에 따라 최규철(87, 경영) 후보가 1번을 성현수(90, 기계) 후보가 2번을 부여 받았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학부 식당에서 80여명의 학우가 참여한 가운데 1차 유세가 있었고, 12월 1일 오후 7시에 2차유세가 학부식당에서 열린다.

투표일인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반에 걸쳐 투표가 진행된다. 장소는 학사지구, 동측, 서측 지구로 나뉘어 실시된다. 개표는 투표 당일 오후 8시부터 선거관리 사무실(구 학생회관 2층 과대련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재 과 대표자연합회 2인, 학부대표 5인으

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봉선학)는 선거 부정의 고발을 받고 있다.

예년에 비해 선거 기간이 무척 짧은 데다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선거의 열기는 그리 뜨겁지 않아 지난 1차 유세는 한산 하기 까지 했는데 이런때일수록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양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1번 늘푸른 총학생회에서는 누적 학사경고제도, 학생의회구성, 학점 은행 운동등을 내세우고 있고, 2번 전진하는 총학생회에서는 학생 복지회관 건설 추진, 안경점 매장 설치, 문화학교 개최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학우들 사이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 지난 11월 26일 학부식당에서 80여명의 학우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제8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선거 유세가 열렸다.